

열린세상

국민 눈높이 맞추는 '개혁'의 2020 만들어



정정웅 이사 겸 논설주간

요즘 세간의 화두는 단연 '개혁'이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사회개혁 등등. 개혁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부문이 없다. 특히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은 최대의 이슈다. 그럼 개혁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정치·사회상의 구(舊) 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돼 있다.

도 개혁 대상인 검찰과 추진주체인 법무부·청와대 간 마찰·갈등이 거세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크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 측은 의지가 거침이 없다. 검찰이 그간 직접수사를 무기로 과도한 검찰권을 사용해 온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여당이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령로펌 영입제안을 일체 거절,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소병철 전 고검장을 인재영입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의지가 읽힌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개혁

검찰 못지않게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는 정치권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컸던 데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선 패스트트랙이나 검찰개혁 같은 개혁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극단의 대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짜증을 더한 탓이다. 사실 정치권 개혁은 어제오늘의 답론은 아니다. 이는 상시 담론으로 반복돼 왔지만 20대 국회 행태가 워낙 국민들의 믿음이 돼왔던 터라 21대 총선에선 물갈이를

비롯한 개혁공천 요구가 상대적으로 거셀 뿐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떠밀리듯 제스처를 보이고는 있다. 옛그제 소위 '개혁보수'를 기치로 창당한 새 보수당의 경우에서 보듯,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경쟁을 하다가 개혁을 외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갈이 공천이다. 각 당은 이번 총선에 대폭적 물갈이를 통한 개혁공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0여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규모의 의원들이 불출마를 밝혔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불출마 사유를 들여다보면 불출마 자체를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무리가 있다. 지지 하락으로 강제로 밀려나기 전의 결단일 수 있고 여당의 여성 장관들처럼 청와대의 권유가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큰데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락에 촉박과 관계없이 당 지도부의 공천 결정을 편하게 해 주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건 물갈이를 통한 새로운 인물 등용과 혁신의 기폭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떠밀린 개혁 제스처라면 유권자 기만이나 다름 아니다.

정치권이 알아야 할 점은 유권자들이 불출마선언 자체에서 끝났선안한다는 점이다. 멀어져 가는 지지를 되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이 아닌 개혁공천, 즉 지역민들의 선택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후보자의 합리적 공천 과정, 그들이 보일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개혁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지 확대로 연결하긴 만무한 일이다.

특히 정치권 개혁은 필수

어느새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2022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거대 정당들의 열성적 지지층 동원 양상과 격렬한 대립 구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과 후보 경쟁력이 필수이다. 몇몇 눈요기 개혁 이벤트나 잔 수는 안된다. 디테일의 개혁적인 승부가 필요하다. 끝까지 절실하게 개혁을 하는 쪽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 202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광주관광재단, 전남과 연계 고려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0년 핵심 시책으로 밝힌 (가칭)광주관광재단 설립의 윤곽이 나왔다. 오는 7월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사이 광주시는 민선7기 이용섭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해 왔다. 컨트론타워 마련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지난해 연말 나왔다. 이 용역에는 전남기구의 형태와 경제적 타당성, 기구의 역할, 조직·인력·재정 규모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시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 출연기관으로 하고,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한편 별도의 대표이사실을 두고 경영기획 등 4개 팀 25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기존 광주관광컨벤션투어를 통합하고, 전일빌딩에 운영 예정인 '남도

관광센터'도 위탁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새로 출범할 광주관광재단은 관광 콘텐츠개발과 학술, 홍보·마케팅, 전문 인력 역량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허가가 필요. 한 만큼 지난해 1차 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 중 2차 협의를 거쳐 행정부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 개정과 정관개정, 직원 채용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 오는 7월 출범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쟁스러운 것은 광주·전남이 제각각 '관광컨트론타워'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관광산업이 광주시를 두고 경쟁기획 등 4개 팀 25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기존 광주관광컨벤션투어를 통합하고, 전일빌딩에 운영 예정인 '남도

'고3 투표' 선거법교육 시급하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현실화됐다. 광주·전남 상당수 고3 학생들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광주에서 5,300여명, 전남에서 6,000여명 등 광주·전남에서 모두 1만1,3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선거권 확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학교현장이 정치판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일부 '정치편향'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교육단체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오염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다는 의견 대다수다. 다만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선거 경험이 전무해 자칫 정치판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해 선거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거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 다가오는 총선까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애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는 선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들의 올바른 정치참여가 향후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고



김은숙 광주 북구보건소장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북적거린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은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2005년부터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확대됐다. 현재는 보건소,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은 38.1%이며,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은 9.5%이다.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공공장소 21.1%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점 등 금연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강화된 후로 간접흡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0%,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은 9.0%까지 감소 계획이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중독 때문이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 주의력 및 수행 능력을 향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니코틴에 의한 대뇌의 활동이 기보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단 증상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보인다. 흡연으로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 보상을 받게 되면 흡연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며, 이런 갈망은 금연 후 수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금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금연 보조제이다. 금연 보조제로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사탕이 있으며, 경구약물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이 있다.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패치는 뇌에 니코틴을 서서히 전달해 금단 증상을 줄여 금연에 도움을 주고, 경구약물인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결합해 작용약과 결합해 두 가지의 효과로 금연을 도와준다. 그러나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흡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타르는 없지만, 니코틴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담배 못지않게 많이 인체에 해롭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초기 흡연 도구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등 전자담배가 흡연 전 단계로 이용되기도 해 금연보조제나 흡연 대체요법으로 권고되지 않는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만성질환이므로 의지적으로 금연하기는 매우 어렵다. 금연실천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니코틴 배출을 도와주어야 금단현상을 줄일 수 있다. 흡연은 술이나 커피 등의 일상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금연 초기에는 술자리를 피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또한 흡연자는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하루에 8-10컵 정도 물을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하고 입이 심심할 때 무가당 껌이나 사탕, 은단 등을 준비하고 손을 놀릴 수 있는 악력기, 호두 등을 준비한다. 담배값을 모아 나라를 위한 선물을 준비

금연 다짐

한다. 올해부터는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성공작금'도 출시되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금연클리닉 방문하는 금연 결심자에게 CO측정, 금연상담 및 건강정보제공, 금연 홍보, 한방 침, 금연보조제 등을 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6개월 서비스 이후 6개월간 추가관리를 실시하고 6개월 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기념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친구끼리 동료끼리 함께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좋은 듯하다. 금연 참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꼭 성공할 것이다. 금연! 나도 한다면 한다! 문구로 나를 무장하자. 내 몸에서 담배냄새가 아닌 향긋한 향기가 날 것이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지만 2020년에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화소상사 예방안전과 최성영

특지광장

난방용품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한 겨울 보내자

겨울철 추위가 다쳐오고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난방기구와 전열기구 사용의 급증으로 주택 등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했을 때 과열 추정 등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사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담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매트 난방용품은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사용하기 전 점검은 필수이므로 전기매트 등 전선이나 전열부 등 먼지가 끼어 있으면 제거하고, 파손 또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전기매트 조절기에서 발화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용 시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출 시 전원을 꺼둬야 한다. 전기매트는 외출 후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저온으로 잠시 켜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커지므로 반드시 전원을 꺼줘야 한다. 다섯째, 전기매트는 보관 시 종이 접착이 접지 않아야 한다. 전기매트를 접을 경우 내부 열선이 꺾여 파손되거나 망가져서 이를 모르고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등글레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거실 등 전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한 화재 초기에 인명대피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 /화소상사 예방안전과 최성영

광산업진흥회 전담기관 선정 기대 크다

기지수첩

광주에서 태동한 광산업이 부진의 터널을 뚫고 재 도약의 적기를 맞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반 기술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해 광융합기술종합발전 계획발표와 함께 국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기술 지원법'에 따라 산학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광융합산업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회는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인 ▲광융합기술 글로벌 강국 도약 비전 달성 및 선도 기술 확보 ▲산업기반 강화 ▲수요시장 창출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광융합산업은 지난 2017년 5,300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 7,960억 달러로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LED 조명, 디스플레이, 광통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18년 675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과당경쟁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광융합산업은 사물인터넷용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



길윤현 경제부 기자

용되는 초고속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의 매개가 용이한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이미 주요 선진국인 미국·일본·유럽은 광융합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다. 올해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광산업진흥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진흥회는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총출동 지원 프로세스 구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로개척, 수출 확대,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산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침체된 국내 광산업이 4차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fire, police, and medical help.

Table with 2 columns: 전남매일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for the newspaper.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